

금융 재구조화의 공간적 의미*

최재헌**

Financial Restructuring and Its Spatial Implications in Korea*

Jae-Heon Choi**

요약 · 경제활동의 세계화는 세계적 금융체계의 출현을 수반하고 있으며 금융부문의 역할은 현대 경제체계에서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금융기법의 혁신, 자본이동의 자유화는 새로운 조절양식과 이에 따른 조절공간의 변화를 수반한다. 한국의 경우 금융구조조정은 전세계적인 금융위기와 필요에 의한 대응으로 이해되며 제도적 변화와 함께 금융기관의 흡수·합병·퇴출을 통하여 기업부문, 정부부문뿐 아니라 공간적으로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일반은행 점포수의 변화를 금융구조조정 이전인 1997년과 이후인 1998년을 비교 분석한 결과 점포수의 급격한 감소와 함께 지역적인 특색이 나타났다 금융구조조정은 서울·경기를 포함한 수도권에서 가장 활발히 일어나고 있으며, 도시 인구규모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소규모 도시일수록 변화의 폭이 감소하고 있다. 구조조정 기간 중에 은행수의 변화는 인구규모와 밀접한 연관성을 나타내고 있다.

주요어 · 금융 재구조화, 금융구조조정, 금융 제도, 일반 은행, 자본의 세계화

Abstracts . Globalization in the world economy provokes the changes in the financial sector which plays a more important role in the world economic system. Furthermore,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and telecommunication, financial innovation, and free capital flows bring so much changes in current regulation systems and regulatory space. The financial sector has been restructured in response to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d local demands in Korea. The recent implementation of financial restructuring process contains several institutional features including M&A to make bigger companies, the banking closure, selling out to foreign investors, changing banking regulation, emerging new control and command institutions and so. This financial restructuring process also has spatial implications throughout the adjustment of branch banking offices in revealing regional variations nationwide.

Considerable regional variations are found in the Korean urban system according to the urban size. The large metropolitan areas including Seoul Metropolitan Region have been changed heavily from the financial restructuring in the period of 1997-1998 .

Key Words . financial restructuring, financial institutions, general banks, global financing

1. 서론 : 연구배경과 목적

현재의 세계경제는 과거의 고립적인 국가경제 위주의 경제체계에서 탈피하여 국가간의 통합과 상호교류가 중요시되는 새로운 세계경제체계로 변화하고 있다. 이것은 다국적 기업의 활동과 국가간의 새로운 무역질서를 대표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출현 등에 기인한 것으로, 경제활동의 세계화는 필연적으로 새로운 세계적 금융체계의 출현을 수반한다. 일반적으로 금융부문은 경제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중개자적인 역할에서부터 경제활동을 조정하고 통제하는 기능과 새로운 신용을 창출하는 기능까지 수행하며 현대 경제체계에서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카지노 경제로 대표되는 세계금융체계의 출현은 과거와는 다른 제도상의 변화뿐 아니라 금융의 재구조화가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그러나 금융의 재구조화를 통한 세계 경제의 통합은 일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고유한 지역성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즉

* 이 논문은 1998년도 건국대학교 지원에 의한 논문임 (This paper was supported by Konkuk University in 1998).

** 건국대학교 이과대학 지리학과 조교수 (Ph.D,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Konkuk University)

세계금융체계가 전폭적으로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쳐 국가경제를 일률적인 방향으로 바꾸기보다는, 지역에 고유한 '제도적 장치의 농도 (institutional thickness)'에 따라 영향력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이다 (Amin and Thrift, 1995). 금융부문의 재구조화는 크게 세계적인 규모에서의 변화와 국가적 규모에서의 변화, 그리고 지역에서의 구체화된 변화 등의 여러 지리적 규모에서 파악 가능하다. 세계적인 금융체계의 변화는 결국 제도적인 채널을 따라서 국가적인 제도 변화를 초래하며, 지역적인 차원에서는 고용 변화와 함께 금융의 국제화와 관련된 도시내의 '국제화된 부문 (international sector)'의 출현과 관계를 맺고 있다. 즉 금융의 재구조화는 세계적인 것(the global)과 지방적인 것(the local), 다른 말로 세계화와 지방화의 이원적인 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다.

세계화와 지방화의 개념을 다루면서 지리학 내에서는 최근 세계화(globalization)와 정보화 등에 의해 전통적인 지리학 연구에서 중시하는 지역의 개념과 지역 격차가 사라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에 반하여 세계적인 것을 받아들이는 정도는 지역의 기반시설이나 문화적 수용성, 제도적 장치 등에 의해 달라짐으로 오히려 지역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대립되어 나타나고 있다. 즉 세계화에 따라 공간적인 차이가 소멸되는가 아니면 증폭되는가 하는 논의가 중요시되는 것이다(최재현, 1998).

금융활동의 세계화가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세계각국은 금융 부문의 재구조화를 통해 기업부문의 경쟁력을 높이고 효율성을 증대시키려고 시도하고 있다. 국가 내에서 금융부문에서의 제도적 개혁과 변화는 기업과 은행조직의 개편, 금융지점 등의 통합, 고용력 변화 등의 부수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세계금융체계는 국제통화기금(IMF)와 세계은행(World Bank) 등의 세계적인 조직을 탄생시켰으며, 공간적으로 볼 때 금융의 재구조화 과정을 통하여 세계적 규모에서의 의사 결정 기능을 담당하는 세계 도시를 출현시켜 새로운 세계도시체제를 형성하는 기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최근 경제위기는 금융부문의 부실

과 이로 인한 외환위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이 지적되어 왔다.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해 금융 개혁과 재구조화가 기업부문의 개혁과 한국경제 전체의 체질개선을 위한 노력과도 연계되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이런 금융부문의 개혁과 재구조화는 일련의 제도적 조정과 변화를 거쳐 공간적인 측면에서도 은행지점망의 재정비, 부실금융기관의 퇴출, 금융기관간의 통합 등을 통해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제도적인 접근방법에 초점을 맞추어 금융 부문의 재구조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적인 특색의 변화와 그것의 공간적 의미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이론적 측면에서 금융부문이 가지는 중요성과 국제적 규모에서의 금융 재구조화의 특색을 살펴본 후에 한국에서 금융개혁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제도상의 변화와 특색을 고찰하였다. 또한 금융구조조정이 일어나기 이전인 1997년 11월과 1차 구조조정이 완료된 1998년 12월을 기준으로 하여 부실은행과 퇴출 금융기관의 지점과 점포 변화자료, 그리고 일반은행의 점포변화 자료를 지역별로 분석하여 금융의 재구조화가 미치는 공간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일반은행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으로 구성되며 정부가 특수 목적을 위해 설립한 특수은행과 달리 시장성을 중시하고 있고 금융구조조정의 1차적인 대상이 되었기에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금융부문의 개편은 결국 기업조직의 개편 뿐 아니라 각종 제도상의 변화를 유발하며 지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금융의 재구조화와 경제의 세계화는 도시라는 공간 단위 속에서 도시계층구조와 도시내부구조에 영향을 미치며 도시의 경제적 특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세계화와 지방화의 이원적 시각에서 볼 때 금융활동의 세계화와 연관되어 지역 금융체계가 어떤 특색을 가지는가를 밝히는 것이며, 한국에서의 금융의 재구조화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밝힐 수 있을 것이다.

2. 금융 재구조화의 이해

1) 금융의 역할과 금융조절체계

일반적으로 금융부문은 중개기능을 통해 개인에게 분산된 개별 자본을 저축의 형태로 수집하고 집중화시켜 금융자본을 형성한다. 금융기관은 이런 화폐의 수신활동과 여신활동을 통해 자본의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교환을 매개함으로써 교환비용을 줄여 화폐의 유동성을 증가시키며, 자본순환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게 하고, 장기적 투자와 소비가 용이하도록 할뿐만 아니라 가상자본(fictitious capital)¹⁾을 위한 시장형성에도 관여하게 된다. 즉 금융기관은 신용창출을 통하여 월납이나 분납을 통해 자금수요자가 쉽게 자본에 접근하도록 하여 장기적인 고정자본 등에 투자를 용이하게 하고, 소비자에게도 물품구매 등에 신용을 부여하여 분납을 가능하도록 하며, 이를 통해 소비를 촉진하고 상품의 순환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경제활동에서 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런 금융의 역할과 중요성의 증대를 설명하는데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 특히 지리학에서 Harvey는 화폐(money)는 자본주의 체계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이며 생산자본의 순환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금융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Harvey, 1982). 즉 화폐는 생산 수단이나 노동력의 형태로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사용되며 생산활동을 거쳐 새로운 상품으로 변환되고, 상품의 판매로 인해 다시 화폐의 형태로 돌아오는 순환과정을 가지며, 이런 화폐와 생산의 순환과정을 통해 계속적으로 잉여가치가 창출되어 자본 축적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Harvey는 생산 자본의 순환과정에서 생산자본과 금융자본, 그리고 상업자본의 세 가지 형태를 제시하면서,²⁾ 금융자본과 상업자본이 비록 상품 생산활동에 직접적인 구성요소가 되지 않지만 자본의 순환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금융활동을 통해 자본주의 사회의 위기가 극복되어 간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생산체계에서 화폐가 가지는 교환의 매개체와 가치의 측정수단이라는 두 가지 역할은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화폐증발과 자본주의의 위기가 초래되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이 바로 국가가 도입한 신용화폐(credit money)나 국제적인 시장확대를 위한 가상자본과 같은 금융수단이라는 것이다(Leyshon and Thrift,

1997). 즉 금융부문은 국가가 도입한 신용화폐 등을 작동하게 하는 신용체계를 의미하며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을 재생산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

금융활동은 국제적인 규모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금융부문은 세계 금융체계를 구성하는 구성단위로서 국가경제에 신용을 창출하고 확대하는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동시에 금융부문을 이해하는데 있어 세계적인 금융체계의 역할 증대와 가상 자본의 폭발적 증가는 보편적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금융부문은 단순히 화폐만을 다루는 부문이 아니라 사회 및 문화적 차원에서 구성원간의 신뢰에 바탕을 두고 다차원적이고 복잡한 조절체계를 통해 지원되고 유지되는 부문으로 이해된다. 세계 금융체계의 등장은 다른 의미로 이것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조절제도(regulation system)와 국제적인 조절공간(international regulated space)이 동시에 형성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다(Leyshon and Thrift, 1997).

조절제도는 각 시기별로 적합한 국제적 조절양식을 위해 여러 번의 재구조화 과정을 경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조절(regulation)은 두 가지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하나는 체계에서 평형상태를 유지하여 재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독립적이면서도 동적인 경제 및 사회체계가거나, 법적이거나 행정적 역할을 하는 제도적 틀로서 이해된다. 조절학파에서는 조절체계를 자본주의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속성을 가진다고 이해하고 있다.

금융부문에서의 조절체계의 조절공간은 자본의 국내화로부터 자본의 세계화로, 그리고 국가규모의 금융활동 영역에서 세계규모의 금융활동 영역으로 변화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국가는 은행 시스템에서 중앙은행을 통해 예금액과 화폐 발행액을 조절하여 금융부문을 규제하여 왔다. 특히 금융규제의 주요 수단은 금융기관의 금융활동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한 부문에서의 금융위기가 다른 부문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융 영역에서의 세분화와 파편화(segmentation and balkanization)를 옹호하는 정책 수립으로 잘 나타난다. 그러나 금융기관 자체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구조적인 규제는 궁극적으로 은행의 이윤추구 활동을 제약

하게 되었고, 금융 기법의 혁신에 따라 새로운 금융수단이 발전되면서 국가의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새로운 영역으로 금융활동이 확대되게 되었다. 그 결과 국가의 규제 정책도 신용창출의 범위를 확장시키고 금융감독기구를 통해 만들어진 규제책에 따라 통제가 이루어지는 방향에서 벗어나 국제금융자본을 고려하고 국제적인 신용창출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었다.

또한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기술과 통신기술이 발달하고 기업 및 시장이 세계화되어 다국적기업이 등장하고, 금융기관도 국가 규제를 피하여 새로운 이윤을 창출할 수 있도록 금융기법 혁신을 통해 활동영역을 확대함에 따라 새로운 조절체계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금융활동의 공간적 범주가 국가에서 세계로 확대됨에 따라 기존 조절양식이 영향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조절체계가 요구되었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국가 주도형 자본주의 모델로 대표되는 국가적 차원의 개발 이익 추구는 국제경쟁을 심화하게 되었으며, 국제적 범주에서 기업혁신과 이윤창출 등에서 경쟁을 통한 새로운 조절적 평형과 균형감각을 요구하는 새로운 조절 수단을 필요로 하게 되었던 것이다. 한 예로 국제금융체계에서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국제결제은행(BIS: Bank of International Settlements)과 같은 새로운 국제적 조절체계가 탄생하였다. 국제결제은행은 금융부문에서의 위기상황을 방지하고자 국제 은행활동에서 자본의 적정 요구치를 요구하며 한국이나 일본 등 낮은 국제결제은행 기준을 가지는 국가로 하여금 금융 구조 조정을 촉진하도록 하였다.

새로운 국제적 금융조절체계는 결국 자본의 세계화 현상을 가져 왔지만, 자본의 세계화가 세계적 차원에서의 자본의 조절양식을 확대시키는 동시에 지경학적이며 경제적 차원의 경쟁을 통하여 전세계적인 환경파괴나 국가간의 조절체계의 조절에서 유연성을 상실하게 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점도 간과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2) 세계 금융 재구조화의 특색

국제금융체계는 시기별로 독특한 특색을 나타

내며 발전하여 왔다. 19세기의 국제금융질서는 영국의 주도 하에 형성되었다. 영국은행(Bank of England)이 국제 금융체계에서 조절기능을 담당하였으며 금본위제도가 채택되어 화폐는 직접적인 상품자본으로 환원될 수 있었다. 신용은 바로 물질적 화폐와 연결되어 있어 채무자는 변제 범위 내에서만 신용을 확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신용확대에 한계가 있었다. 각국 중앙은행의 금보유량이 국가의 부와 직결되었고, 국가간의 금융결제에 있어 고정환율에 따라 화폐교환이 이루어졌다. 또한 국제간의 비교우위는 노동비 삭감 등을 통해 나타나는 절대적인 비교우위를 의미하였다.

19세기 후반에 국민국가 체제가 확립되고 국가 조절적 자본주의(nationally regulated capitalism)가 팽배해짐에 따라 각 국가는 자국 영토 내에서 조절영역을 확고히 하려 하였다. 그 결과 미국과 독일의 경우 국제경제로부터 자국의 경제를 일정부분 고립하고 무역과 자본투자에 보호장벽을 설치하는 보호무역주의를 채택하였다. 이것은 국제경쟁으로부터 벗어나 자국의 시장능력을 키우고 보호하려는 목적 아래 영국 주도의 세계경제에 도전하기 위한 미국과 독일의 자본심화(capital deepening) 전략의 일환이었다. 미국과 독일이 테일러리즘과 포디즘에 기반을 두고 상대적인 비교우위 정책을 추구함에 따라 새로운 국제질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제 1차 세계대전 이후 금본위제로부터 후퇴하면서 신용이 확대되고 자본이 과잉 축적됨에 따라 국제적인 시장확대가 필요하게 되었지만 화폐불안과 보호무역주의에 의해 시장확대가 불가능하게 된 것도 이후 브레튼 우즈(Bretton Woods) 체계로 대표되는 신 국제 금융질서의 탄생을 부추기게 되었다. 국제적 시장확대의 실패는 결국 1929년의 금융위기와 1930년의 대공황을 초래하게 되었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새로운 국제 금융조절은 브레튼 우즈 협정으로부터 출발한다. 이것은 세계 경제질서에서 국가의 독자적인 전략을 인정하지만 1930년대에 나타났던 방어적이고 폐쇄적인 블록화로의 후퇴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브레튼 우즈 체계에서는 오직 달러만을 금으로 바꿀 수 있도록 달러를 표준화폐로 한 고정환율제를

채택하여 국제무역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또한 각국의 외환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s)을 설립하였으며, 무역의 다자간 협상을 위해 관세무역일반협정(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을 출범시켰다. 즉 브레튼 우즈 체계에서 국가들은 자금·상품·서비스 등의 상호유통을 통해 연계되고 세계경제의 조정역할을 담당하는 국제기구에 의해 보완되는 형태를 가지며 다자간 무역협상이 가능해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브레튼 우즈 체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에 의해 결국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다. 첫째, 국제 화폐교환의 고정환율제와 경제성장을 위한 화폐정책 간에는 모순이 일어났다. 국가경제에서 완전고용과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통화팽창이 불가피하였지만 국제적으로는 고정환율을 실시하는 장벽에 부딪히게 된 것이다. 둘째, 미국의 역할이 국제금융질서의 유지자인 동시에 다른 국가 경제와 경쟁을 해야 되는 경쟁단위가 되는 모순이 발생하였다. 달러가 국제화폐인 동시에 국내화폐이기 때문에 재정적자를 매우기 위해 화폐 발행액을 늘리게 되었고 이것은 국제경제체제내의 화폐 순환량을 확대하여 보유한 금으로는 신용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또한 다자간 협상의 주체이면서도 값싼 외국물품의 유입을 막기 위해 미국 스스로가 먼저 규칙을 깨게 되었다. 셋째, 지리적으로 근접한 국가간에 새로운 공간 단위체가 형성되는 무역의 블록화가 진행되면서 공정한 다자간 협정의 기본 원칙이 파괴되기에 이르렀다. 넷째, 전후 유럽 재건을 위해 투자되었던 유로달러가 유로마켓을 성장시키게 되었고 그 결과 화폐 조절을 위한 미국의 기능이 마비되었다. 다섯째, 다국적기업 활동이 증가하게 된 것은 값싼 자본의 국제간 이동을 야기하여 자본의 국제화가 촉진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결국 국가간의 엄격한 자본이동 통제를 수단으로 하는 브레튼 우즈 체계를 파괴하게 하는 새로운 요인이 되었다(Strange, 1994; Leyhon and Thrift, 1997).

국가의 통제에서 벗어난 금융기관간의 대출체계의 형성은 자금유자본이 국제통화기금이나 세계은행을 통한 자본을 압도하게 되는 결과로 나타났으

며 금융체계의 불안정을 초래하여 1971년 금본위 표준 화폐로서의 달러 정책이 포기되고 1973년 변동 환율제가 시작됨으로써 사실상 브레튼 우즈 체계는 종말을 고하였다. 또한 미국은 국제 금융 질서아래에서 조정자의 역할을 벗고 새로운 경쟁자로서의 자리 매김을 시작하면서 적극적인 무역공세를 펴 나가게 되었다. 즉 달러의 공급을 늘려 국내의 자본 축적을 늘리고 국제적으로는 달러 가치를 하락시켜 수출확대를 시도하였던 것이다.

공간적 관점에서 볼 때 국제금융질서는 1970년대에는 내생적인(inclusive) 금융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다. 즉 선진 공업국에서 개발국으로 자금이 순환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며 금융체계의 조직적 논리는 금융기관의 중개를 통한 체권 체무관계로 규정되었고, 은행은 전통적인 금융중개기능을 담당함으로써 대출자와 예금자 사이에서 이윤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금융거래 질서는 금융기관의 탈중개기능을 더욱 강조하게 되는 외생적인(exclusive) 면으로 변화하였다.

이 배경에는 1980년대의 개발도상국들의 외채위기가 자리잡고 있다. 국제적 규모의 은행은 외채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논리를 개발하게 되었고 이것은 국제간의 금융과 자본이동이 북미, 유럽, 동남아시아 지역의 세계 블록에 집중되는 결과를 가져와 결국 뉴욕, 런던, 도쿄로 대표되는 세계도시가 금융협력센터(centers of financial coordination)와 금융명령중심지(financial command posts)로서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Sassen, 1991; Amin and Thrift, 1992).

한편 후진국의 외채위기는 은행들의 도산과 연결되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노력이 국제결제은행이 대출에 대한 자기자본율을 8%로 규정하는 것과 같은 새로운 조절체계의 탄생으로 연결된다. 후진국에 대한 금융지원이 제한되자 자금은 당연히 선진국의 다국적기업 등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다. 선진국의 다국적기업과 독립된 자금 수요자들은 은행보다도 일반 금융시장에서 더욱 저리로 대출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증권 상장이나 채권 등을 통한 자금 공급이 일반화되었으며 자금의 수요자와 대출자간의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은 직접거래로 금융기관의 탈중개화 현상이 가

속화되었던 것이다.

1980년대 이후 국제금융체계의 재구조화는 금융의 탈중개화, 금융시장의 통합, 금융자본의 집중화, 금융의 재규제화의 움직임과 맞물려 시장의 효용성을 증시하는 방향으로 금융시장을 변화 시키게 되었다. 먼저 금융의 탈중개화 경향과 관련하여 금융시장에서 제도권내 은행들과 기타 금융기관사이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변화무쌍한 금융시장에서 위험 관리를 위한 새로운 금융기법들이 빠른 속도로 개발되었다. 둘째, 세계적인 범주에서 화폐와 자본의 통합과 연계성이 증대되었다. 정보 및 통신기술의 발달로 국지적인 정보가 세계적인 수준에서 공유되고 지구상의 어느 곳에 있던지 실 시간대에 은행거래가 가능해짐에 따라 국제외환시장의 규모가 급속히 팽창하였다. 셋째, 국제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은행의 대형화와 집중화가 더욱 가속화되었다. 넷째, 국제적인 금융조절체제에서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탈규제화 현상이 가속화되었다(Leyhon and Thrift, 1997).

세계적인 금융의 재구조화 움직임과 관련된 이런 일련의 변화는 국가 내에서도 금융 부문과 관련된 많은 변화를 야기하였다. 첫째, 개별 국가의 독자적인 경제 역할 증대로 이어졌다. 인플레이션 정책을 취하는 국가는 외환시장에서 이자율을 상승시켜 환율방어를 하여야 되는 부담을 안게 되었다. 국가의 경제정책도 거시경제정책을 통한 총량성장위주의 정책에서 탈피하여 국가경제 내의 경쟁력 있는 부문을 집중 육성하는 미시경제정책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미국은 레이건 행정부 하에서 고이자율 제도를 채택하여 전세계 자금을 모아 군사력 및 첨단과학분야에 집중투자하였으며, 우루과이라운드를 시작으로 통상압력을 통해 자국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꾀하였다. 또한 G7 정상회담 등을 통해 자국에 유리한 거시경제환경 구축을 시도하였으며 일본에 대해 대대적인 무역반격에 나서게 되었던 것이다.

둘째, 정보 통신기술의 발달과 국제 금융자본의 유동성 증대는 금융의 국제화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새로운 국제 금융환경 하에서 새로운 조절 형태들이 나타나는 기반으로 작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자본의 세계화, 금융활동의 국제화는 금융기법 혁신, 정보 통신기술의 발달, 자본자유화

와 축적과정의 세계화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먼저 금융혁신과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국제적 자본이동에서 국가의 금융규제 정책을 피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가의 금융자본 조정 능력은 저하되고 금융 시장에서의 의존도가 높아지게 되었다. 더 높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투자 자본의 국제적 이동은 공간적 상업거래(spatial arbitrage)의 중요성을 부각하였으며, 금융기관간의 자유 경쟁을 촉진하는 시장자유화의 움직임을 확산시켰다. 최근 시장자유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금융부문에서는 국가내 또는 국가간의 은행 합병을 통한 거대화의 움직임도 이런 시각에서 파악할 수 있다.

셋째, 그 결과 1980년대 전반부터 광범위한 규제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다. 금융감독기구가 은행대출에 대해 자기자본비율(capital to asset ratio)을 높게 책정하여 은행의 자산확대 기도를 봉쇄하는 다국적 규제조항(BIS)을 만듦에 따라 투자자에 의해 해외직접투자가 선호되었고 은행도 신용장이나 증권 이슈, 수수료 등을 통한 이윤창출을 강화하게 되었다. 이런 변화는 또한 기존의 금융 규제책으로는 투기성 금융자본의 이동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해지는 결과를 가져와 결국 새로운 금융 규제책의 탄생을 요구하게 되었다. 경제학자인 Tobin이 제시한 국제단기유동자금의 규제를 위한 토빈세 신설에 대한 주장이나, 유럽의 국가들이 국제 화폐 불안정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화폐교환에서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1979년 결성한 EMS(European Monetary System)나 금융부문에서의 주도권 쟁탈을 위한 런던, 뉴욕, 도쿄의 세계도시화 추세, 1992년 이후 단일시장 형성을 위한 유럽연맹의 등장과 최근 유로화의 출범 등은 이런 불확실한 금융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이찬근, 1999).

3. 한국의 금융 재구조화

1) 금융구조조정에서의 제도적 측면

최근 발생하고 있는 동아시아 각국의 외환위기의 원인은 크게 내생적인 요인에 의한 위기설과 국제 단기유동자본 등의 공격에 따른 외생적인 원

인에 따른 위기설로 크게 나누어진다(이찬근, 1999). 우리 나라의 경우 1997년 말 외환위기를 시작으로 한 한국경제의 실물 경기 침체와 금융시장의 경색은 소득의 감소 및 실업의 증가에 따른 소비수요의 감소로 인한 생산의 급격한 감소와 고금리 등으로 인한 투자수요의 위축 등으로 나타났다.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은 사회 전 분야의 구조조정을 전제로 하여 내생적인 차원에서의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로 외환 원인을 진단하고 있어 금융 및 기업부문에서의 구조조정을 요구하였으며 이는 금융부문에서의 재구조화로 연결되어 진행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금융부문이 가지는 구조적 취약성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이 지적된다. 첫째, 금융기관에 대한 과도한 규제 및 보호에 따라 금융산업이 낙후되어 있다. 여기에는 금융산업의 시장기능 상실로 인한 경쟁력 약화와 담보대출의 관행화에 따른 대출 심사능력의 결여, 이로 인한 불량자산의 증대. 또한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위험관리체계의 미비 등이 포함된다. 둘째, 금융 자유화 조치에 따른 비은행 금융기관수가 급격히 늘어남으로써 기업의 자금 조달면에서 단기화 현상이 나타나 외환 수급면에서 취약점을 나타내었으며, 셋째, 국내 금융산업의 보호를 위해 해외금융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단기성 자본에 치중한 외자가 규제책을 피해 유입되었고, 제도적 측면에서도 외국의 급격한 자본 유입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였다는 문제가 대두되었다. 넷째, 금융기관 감독기능이 취약하여 결국 금융기관의 광범위한 부실화가 초래되었다고 할 수 있다(허재성·장민, 1998).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일련의 정책이 1997년 11월 19일 재정경제원이 금융시장 안정 및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것으로부터 추진되었다. 정부가 제시한 금융구조조정에는 부실 금융기관의 퇴출, 부실 채권의 정리, 자본금 확충 및 예금 대지급, 금융기관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금융관련 법과 제도의 정비 등의 대책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금융구조조정에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8%에 미달하는 은행에 대한 경영진단과 서울은행과 제일은행의 매각, 그리고 퇴출 은행의 인수확정을 포함하는 은행의 구조조정과 제 2금융권

에 대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부실금융기관의 재발 방지와 금융기관의 능력배양을 위한 제도개선책이 포함되어 있다. 결국 제도적 측면에서의 금융구조조정은 먼저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으로 연결되어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와 지점수의 감축 등을 통한 공간적 측면에서의 재구조화를 의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금융구조조정 중 1998년 말까지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결과를 금융권별로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1). 먼저 은행기관에서 퇴출 은행과 인수 은행을 살펴보면, 동화은행을 신한은행이 인수하였으며, 동남은행은 주택은행이, 대동은행은 국민은행이, 충청은행은 하나은행이, 그리고 경기은행은 한미은행이 인수하였고, 장기신용은행과 국민은행이 합병하여 국민은행으로,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이 합병하여 한빛은행으로, 보람은행과 하나은행이 합병하여 하나은행으로 새롭게 탄생하였다. 이들 흡수·합병은행의 경우 기존 흡수·합병 대상인 은행들의 점포가 인수 은행의 점포와 같은 지역 내에 있을 때 한 점포가 폐쇄되었다. 그 결과 전국적으로 총 670개의 은행점포가 폐쇄되었다(이진순, 1999).

비은행기관의 경우 30개 종합금융회사 중 경남·경일·고려·삼삼·신세계·신한·쌍용·철술·한화·항도는 1998년 2월 17일에 인가가 취소되고, 이어서 한솔(1998. 3. 16 인가취소), 대구(1998. 4. 1 인가취소), 삼양(1998. 4. 15 인가취소), 제일(1998. 5. 18 인가취소), 새한, 한길증권(1998. 8. 12 각각 인가취소) 등 총 16개의 종합금융회사가 퇴출 되었으며, 이들 증권사의 자산부채를 가교 증권사인 한아름증권사로 이관하였다. 증권회사는 고려증권과 동서증권을 인가취소하고(1998. 6. 1), 동방페레그린증권·장은증권·한남투자증권, 한국산업증권을 인가취소 절차를 밟아 청산하였다. 이밖에도 보험회사의 경우 1997년 말 생보사 33개 사, 손보사 17개 사중 국제(삼성생명 보험계약 이전), BYC(교보생명에 업무이전), 고려(제일생명에 이전), 태양(흥국생명으로 이전)의 4개의 생보사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시키고, 대한보증보험사와 한국보증보험사는 1998년 11월 25일 합병하여 서울보증보험으로 출범하도록 하였다(한국은행a, 1999).

또한 1997년 말 25개 사였던 리스사도 대부분이

은행의 자회사인 점을 감안하여 모은행 책임 하에 은행구조조정과 연계하여 10개사를 정리하였다. 투자신탁회사의 경우 1997년 말 기준 투신사 8개사와 신설 투신운용회사 23개사 중 신세계투신(98. 2. 17)과 한남투신(98. 8)의 인가가 취소되었다. 이밖에 상호신용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의 경우 1998년 중 각각 22개 금고와 69개 조합이 퇴출되었다. 그 결과 금융구조조정 전후의 금융기관수는 1997년 말 2,100개에서 1998년 말 1,955개로 약 7%가 감소하였으며, 퇴출되거나 합병된 기관의 수는 159개로 1997년도 말 금융기관수의 7.6%에 이르고 있다(허재성·장민, 1998).

2) 금융재구조화의 공간적 영향과 지역적 특색

이런 금융구조조정의 대상이 되는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들은 대부분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금융 구조조정은 과다한 경쟁에 따른 금융기관의 부실화에 대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은행별로 업무 지역이 구분되었던 상황을 고려하면, 퇴출 대상이 된 은행 점포수의 감소를 통해 지역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으로 이루어진 일반은행을 대상으로 공간적인 측면에서의 금융 재구조화의 결과를 좀더 자세히 고려하여 보자.

먼저 전반적인 일반은행수의 변화 추세를 살펴보면, 우리 나라의 일반은행의 점포수는 1955년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가 금융구조조정이 실시된 1997년부터 1998년까지 약 1년 동안 처음으로 일반은행의 점포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그림 1). 이것은 금융구조조정의 영향을 받은 결과로 해석되며 은행점포수의 감소에서 시중은행

표 1. 금융구조조정 후의 금융권별 변화

구분	금융기관수						세부 내역
	조정전 ('97. 12)	조정후 ('98. 12)			신규 설립	영업중 기관	
	퇴출	합병	계				
은행	31	5	3	8	-	23	정리: 5개은행(동화, 동남, 대동, 경기, 충청) 합병: 상업+한일, 하나+보람, 국민+장기신용, 조흥+강원+현대증권 해외매각: 서울·제일 경영개선: 부산·경남·제주·충북·평화·외환 퇴출은행 672개 지점 폐쇄
증금사	30	16	-	16	-	14	16개 증금사 인가 취소
증권사	34	6	-	6	1	29	허가 취소: 2개(동서·고려) 영업 정지: 4개(한남·산업·장은·동방페레그린) 조건부 승인: 2개(SK·쌍용)
보험사	50	4	1	5	-	45	영업 정지: 4개(태양·BYC·국제·고려) 합병: 대한+한국보장보험
리스사	25	10	-	10	-	15	10리스사 정리(서울·부산·대구·광운·중앙·동화·대동·동남·경기·충부리스)
투신사	31(8)	7(2)	-	7(2)	-	24(6)	()은 기존사, 투신사는 연구기간 중 23개사 신설, 기존 중 인가취소: 2개(한남·신세기)
투신운용	23	6	-	6	-	17	허가 취소: 2개(동방페레그린·보람) 정리 4개(동서·고려·으뜸·한남)
신용금고	231	22	2	24	4	211	신설은 계 3차이전방식으로 퇴출금고 인수신설
신용협동조합	1,666	69	14	83	9	1,592	퇴출 내역은 파산 28, 인가취소 1, 해산 40
계	2,100	139	20	159	14	1,955	

자료: 이진순, 1999, 답론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1999. 1월에서 보완 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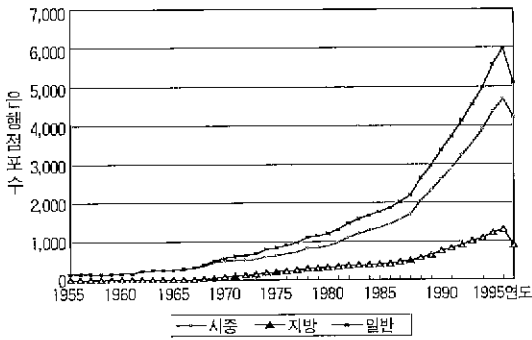


그림 1. 연도별 일반은행 점포수의 변화
 자료: 전국은행연합회, 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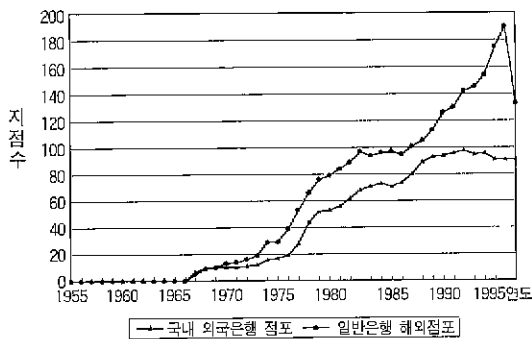


그림 2 국내 외국은행 점포와 일반은행 해외점포 변화
 자료: 전국은행연합회, 1999

과 지방은행, 그리고 국내 외국은행 모두 점포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그림 2).

1997년도 말과 1998년도 말을 비교하여 보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을 포함한 일반은행의 점포수는 1997년도 말의 국내점포 6,029, 해외점포 196을 포함한 6,225개에서 1998년도 말에는 국내점포 5,084, 해외점포 133을 포함한 5,217개소로 감소하여 1997년도 대비 16.2%의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다(표 2). 특히 해외 점포수는 모든 은행에서 감소하고 있으며 감소폭도 국내점포보다 더욱 큰 폭으로 나타난다. 은행 유형별로 볼 때 시중은행 보다 지방은행의 점포 감소 폭이 더욱 크며, 국내 외국은행 보다 일반은행의 해외 점포수가 더욱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표 2). 그러나 점포수의 증감 면에서 다른 시중은행과 모든 지방은행들이 점포수의 감소를 보이고 있는 반면, 우량은행으로 지정된 국민은행, 주택은행, 신한은행, 한미은행,

하나은행, 보람은행의 경우 다른 은행과의 합병으로 인해 오히려 점포수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한미은행과 하나은행의 경우 국내 점포수가 각각 77.9%와 57.3%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표 2). 이는 금융구조조정의 결과 전국적 지점망의 범위와 은행 점포수에서 대형화된 은행이 생겨나고 은행 간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음을 알려 준다.

퇴출된 동화은행, 동남은행, 대동은행, 경기은행, 충청은행 등 5개 은행 지점의 시도별 분포를 보면 경기도가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고, 이어서 서울, 대전, 인천, 부산, 대구, 충남, 경남, 경북의 순으로 나타난다. 이는 은행의 특성에도 기인하겠지만 경기도와 서울 지역이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퇴출 은행의 대부분이 수도권 위주의 영업활동을 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퇴출은행과 흡수은행들이 흡수·합병되면서 해당 점포가 같은 은행의 점포와 같은 지역 내에 있을 때 한 점포가 폐쇄되었다. 이것은 은행 점포간 경쟁에 비해 은행 재산성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지역에서 퇴출은행 점포가 폐쇄될 확률이 높게 나타나게 됨을 시사한다. 경기도에서는 도청 소재지인 수원과 서울의 위성도시인 부천(21), 안양(15), 성남(14), 고양(13), 안산(10)에서 폐쇄 지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다. 이밖에 서울의 강남구(33), 영등포구(18), 중구(17), 서초구(12), 종로구(11)도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광주, 충북, 전북, 강원, 제주 지방의 경우 퇴출 점포수가 비교적 적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퇴출된 시중은행이 서울 경기의 수도권 위주의 영업활동을 주로 하였고, 지방은 지방생활권을 중심으로 하는 지방은행이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표 3).

그러면 1997년도 말과 1998년도 말을 기준으로 일반은행의 점포수의 변화를 지역별로 비교하여 보자(표 4). 일반은행 점포 수는 1997년의 5,988개소에서 1998년에는 904개소가 줄어든 5,084개소를 나타내고 있다. 지역별 감소의 폭은 서울과 경기도가 47%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산·대구·인천·대전·광주·울산의 6개 대도시지역이 29.9%를 차지하고 있어, 수도권과 대도시지역이 전체 일반은행 점포수의 감소에서 76.9%를 차지하고 있다. 그 밖의 도 단위는 23%에 불과하여 금융구조조정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곳은 대도시와

표 2 일반은행 점포의 변화 : 1997년 말 - 1998년 말

은행명	국내 점포			해외 점포			총계		
	'97년도 (개수)	'98년도 (개수)	증감율 (%)	'97년도 (개수)	'98년도 (개수)	증감율 (%)	'97년도 (개수)	'98년도 (개수)	증감율 (%)
조흥	485	420	-13.4	19	14	-26.3	504	434	-13.9
(상업)	513	445	-13.3	15	13	-13.3	528	458	-13.3
(한일)	478	420	-12.1	20	18	-10.0	498	438	-12.0
한빛	991	865	-12.7	35	31	-11.4	1,026	896	-12.7
제일	413	338	-18.2	17	8	-52.9	430	346	-19.5
서울	357	290	-18.8	12	4	-66.7	369	294	-20.3
외환	400	325	-18.8	42	36	-14.3	442	361	-18.3
(국민)	511	545	6.7	12	8	-33.3	523	553	5.7
(장신)	42	45	7.1	6	5	-16.7	48	50	4.2
국민	553	590	6.7	18	13	-27.8	571	603	5.6
주택	499	545	9.0	8	5	-37.5	507	550	8.3
신한	223	246	10.3	12	9	-25.0	235	255	8.5
한미	122	217	77.9	6	5	-16.7	128	222	73.4
(동화)	138	0	-100.0	4	0	-100.0	142	0	-100.0
(동남)	119	0	-100.0	2	0	-100.0	121	0	-100.0
(대동)	107	0	-100.0	1	0	-100.0	108	0	-100.0
하나	110	173	57.3	4	4	0.0	114	177	55.3
보람	99	105	6.1	3	2	-33.3	102	107	4.9
평화	108	86	-20.4	0	0	0.0	108	86	-20.4
시중은행 (정리은행 제외시)	4,724 4,360	4,199 4,199	-11.1 -3.7	183 176	131 131	-28.4 -25.6	4,907 4,536	4,330 4,330	-11.8 -4.5
대구	207	189	-8.7	3	0	-100.0	210	189	-10.0
부산	195	187	-4.1	4	1	-75.0	199	188	-5.5
(충청)	120	0	-100.0	0	0	0.0	120	0	-100.0
광주	147	134	-8.8	1	0	-100.0	148	134	-9.5
제주	46	39	-15.2	0	0	0.0	46	39	-15.2
(경기)	194	0	-100.0	1	0	-100.0	195	0	-100.0
전북	85	62	-27.1	0	0	0.0	85	62	-27.1
강원	70	63	-10.0	1	0	-100.0	71	63	-11.3
경남	168	152	-9.5	3	1	-66.7	171	153	-10.5
충북	73	58	-20.5	0	0	0.0	73	58	-20.5
지방은행 (정리은행 제외시)	1,305 991	884 884	-32.3 -10.8	13 12	2 2	-84.6 -83.3	1,318 1,003	886 886	-32.8 -11.7
일반은행 (정리은행 제외시)	6,029 5,351	5,084 5,084	-15.7 -5.0	196 188	133 133	-32.1 -29.3	6,225 5,539	5,217 5,217	-16.2 -5.8

주: ()는 1998년중 정리·합병된 은행임. 점포수는 국내지점 및 출점소, 해외지점, 해외사무소, 해외현지법인 기준임
 자료: 금융감독위원회 web site, 1999, (www.fsc.go.kr)

수도권임을 알 수 있다.

도시체계 내에서의 금융구조조정으로 인한 은행의 공간적 변화 특색을 인구규모를 고려하여 살펴 보자. 첫째, 전체 점포수의 변화를 보면, 인

구가 큰 규모의 도시일수록 점포수의 감소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에서 점포수의 감소가 전체에서 54.9%의 비중을 점하고 있으며 이어서 50만에서 100만의 도시가 16.6%, 20

표 3. 5개 퇴출은행 점포의 시·도별 분포

지역	퇴출지점		비고
	개	%	
서울	153	22.8	강남구(33) 영등포(18) 중구(17) 서초(12) 종로(11)
경기도	158	23.5	수원(22) 부천(21) 안양(15) 성남(14) 고양(13) 안산(10)
대전	89	13.2	
인천	77	11.5	
부산	49	7.3	
대구	48	7.1	
충남	43	6.4	
경남	25	3.7	울산(8) 창원(5) 양산(5)
경북	17	2.5	
광주	3	0.5	
충북	3	0.5	
전북	3	0.5	
강원	2	0.3	
제주	2	0.3	
총계	672	100.0	

자료: 금융감독위원회 web site, 1999, (www.fsc.go.kr) 퇴출은행 지점 현황 (필자 재정리)

표 4. 시도별 일반은행의 변화, 1997-1998년

시도명	1997년도	1998년도	증감	변화(%)*
서울	2,244	1,997	-247	27.3
부산	527	463	-64	7.0
대구	352	291	-61	6.7
인천	256	198	-58	6.4
대전	182	134	-48	5.3
광주	175	157	-18	2.0
울산	119	96	-23	2.5
경기	913	735	-178	19.7
충북	133	115	-18	2.0
충남	119	86	-33	3.7
경북	192	154	-38	4.2
경남	281	234	-47	5.2
전북	176	139	-37	4.1
전남	133	118	-15	1.7
강원	117	106	-11	1.2
제주	69	61	-8	0.9
합계	5,988	5,084	-904	100.0

* 일반은행 점포수의 전국적 감소분 904를 100으로 보았을 때 각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건국은행연합회, 1998, 1999, 금융기관점포총람을 기초로 필자 재정리

표 5 도시규모별 일반은행 수의 변화

(단위: 개수, %)

도시 인구규모	1997년도 일반은행	1998년도 일반은행	점포수 변화('97-'98)	1997년* 인구비중(%)
100만 이상	3,736(62.4)	3,240(63.7)	496(54.9)	53.4
50만 ~ 100만	867(14.5)	717(14.1)	150(16.6)	17.0
20만 ~ 50만	735(12.3)	592(11.6)	143(15.8)	16.2
10만 ~ 20만	341(5.7)	291(5.7)	50(5.5)	11.0
5만 ~ 10만	69(1.2)	58(1.1)	11(1.2)	1.8
읍면계	240(4.0)	186(3.7)	54(6.0)	-
합계	5,988(100.0)	5,084(100.0)	904(100.0)	100.0**

자료: 건국은행연합회, 1998, 1999, 금융기관점포총람을 기초로 필자 재정리.

* 내무부, 1998. 한국도시연감 ** 전체도시인구를 100으로 계산

만에서 50만의 도시가 15.8%, 10만에서 20만 규모의 도시가 5.5%, 10만 이하의 도시는 12%로 나타나서 점포수의 감소율은 도시의 인구규모에 비례하고 있으며, 중하위 규모의 도시에서의 은행 점포수의 변화율은 약하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 금융구조조정 이후에 각 도시규모별로 은행점포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가 전체 일반은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97년도의 62.4%에서 1998년도에는 63.7%로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반면, 100만 이하의 도시들의

경우 10만에서 20만까지의 도시에서 변화가 없을 뿐 전체적으로 비중이 하락하고 있어, 금융구조조정 이후 은행활동은 오히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로 더욱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셋째, 도시규모별 인구비중과 비교하면 인구 100만 이상 도시의 경우 일반은행 점포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보다 높게 나타나 앞에서 밝혀진 금융활동의 대도시 집중도를 더욱 잘 반영하여 주고 있다. 반면 100만 이하 도시의 경우 인구비중 보다 은행수의 비중이 작게 나타나고

있어 금융 활동에서 상대적인 취약성을 보여주고 있다(표 5).

전국의 77개 도시(n)를 대상으로 1997년도 도시의 인구수(X)를 독립변수로 하고 1997년에서 1998년까지 금융구조조정 기간 동안의 일반은행 점포수 변화(Y)를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하여 보면 도시의 인구와 은행 점포수 변화간의 관계를 규명 가능하다. 회귀분석의 결과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한 것으로 판별되었으며, 일반은행 점포수의 변화와 인구수의 상관계수는 0.984이고 회귀식의 설명력은 0.9696으로 나타나, 결국 은행점포수의 변화는 은행활동의 수요적 측면을 반영하는 인구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표 6).

표 6에서 구한 회귀식을 이용하여 잔차 분석을 하면 인구수에 의해 예측되는 금융구조조정의 강도가 각 도시별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를 알 수 있다(표 7). 잔차값은 일반적으로 회귀식에 의해 예측된 기대값에서 실제값을 뺀 것이기 때문에, 만약 정(正)의 잔차값을 나타낸다면 이것은 예측값이 실제값보다 큰 것으로 금융구조조정 이후 일반은행 점포수의 감소폭이 인구수에 의해 예상되는 변화보다 작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반면 부(負)의 잔차값을 나타낼 경우는 일반은행 점포수의 실제 변화폭이 예측되는 은행점포수의 변화폭보다 더 크게 나타나, 금융구조조정에 의해 더욱 많은 은행 점포가 감소하여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정의 잔차값을 나타내는 전자의 경우 표준화 잔차값 +3 이상인 도시로 부산이 있으며, +1부터 +3까지의 범위에 광주, 수원, 진주, 순천, 여수가 나타난다. 특히 순천과 여수는 금융구조조정 이후 일반은행 점포수가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부의 잔차값을 나타내는 도시로는

표 6. 도시별 인구수와 일반은행점포수 변화와의 관계, 회귀분석 결과

$Y = 1102 - 0.985X \text{ (유의도 } < 0.01)$ <p>Y(종속변수) : 은행점포수의 변화(1997년~1998년) X(독립변수) : 1997년도 인구수 n(경우의 수) : 77 r(상관계수) = 0.984 r^2(설명력) = 0.9696</p>
--

자료: 내부부, 1998, 한국도시연감
 전국은행연합회, 1998, 1999, 금융점포총량.

표준화 잔차값 -3 이상인 대전과, -1부터 -3까지 나타나는 서울, 고양, 천안, 용인, 양산, 여천 등이 있다. 이들 지역에서는 일반은행의 점포수의 감소가 인구수에 비해 더 큰 폭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대부분의 도시들은 표준화 잔차 범위 -1에서 1사이 에 속하여 인구규모에 의한 예측 모델인 회귀식에 거의 일치하고 있어 인구규모에 의해 적절한 은행 점포수의 감소가 일어났음을 시사받을 수 있다(표 7). 결국 금융 재구조화와 구조조정은 도시지역을 위주로 일어나며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금융구조조정은 대도시지역 위주로 일어나고 있어 세계화와 지방화의 이원화된 명령 속에서 도시가 네트워크상의 결절지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강력하게 시사해 준다고 할 수 있다.

4. 요약 및 결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금융기법의 혁신, 금융부분의 자유화는 전세계적으로 볼 때 금융부분에서의 재구조화를 불러오고 있다. 각 국가의 경우 과거와 같은 규제조항만으로 전세계적인 자본의 이동을 조절하거나 규제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고, 또한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서도 금융부분의 새로운 개혁과 조정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금융의 재구조화는 단순히 국가내의 논리로 이해하기보다는 세계적인 스케일에서의 자본주의의 변화와 그 흐름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IMF사태로 일컬어지는 일련의 외환위기는 금융부분의 경쟁력 제고와 효율성 증대라는 새로운 쟁점을 부각시켰고 이것은 1997년 11월부터 시작된 일련의 금융구조조정으로 이어져 왔다. 금융구조조정으로 인해 많은 금융기관들이 퇴출되거나 흡수·합병되었고 이는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변화뿐 아니라 금융부분이 경제사회 전반에 중요한 윤희유가 되는 중개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기업부분과 그 밖의 여러 부분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금융구조조정은 은행의 합병과 퇴출을 통해 가장 먼저 은행의 점포망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것은 공간적 변화로

표 7. 일반 은행점포수 변화(Y)와 도시 인구수(X) 회귀식에 의한 잔차분석 결과

$$(Y = 1102 - 0.985X)$$

예측 점포변화수 > 실제 점포변화수 (+ 잔차값)			예측 점포변화수 < 실제 점포변화수 (- 잔차값)		
표준화잔차	인구규모	도시명	표준화잔차	인구규모	도시명
+3 이상 (1개 도시)	100만 이상	부산	-3 이상 (1개 도시)	100만 이상	대전
	50-100만			50-100만	
	20-50만			20-50만	
	10-20만			10-20만	
	10미만		10미만		
1부터 3 (5개 도시)	100만 이상	광주	-3 부터 -1 (6개 도시)	100만 이상	서울
	50-100만	수원		50-100만	고양
	20-50만	진주 순천		20-50만	천안 용인
	10-20만	여수		10-20만	양산
	10 미만		10 미만	여천	
0 부터 1 (39개 도시)	100만 이상		-1 부터 0 (25개 도시)	100만 이상	대구 인천
	50-100만	성남 전주 청주 포항		50-100만	울산 부천 안양 안산
	20-50만	의정부 김해 목포 원주 춘천 강릉 충주		20-50만	창원 마산 광명 평택 익산 구미 경주 군산 제주 군포 남양주
	10-20만	안동 시흥 아산 거제 이천 구리 김천 정읍 제천 서산 통영 공주 영주 상주 진해 광양 밀양 김제 하남 보령 영천 남원 동해		10-20만	경신 피주 논산 사천 나주 의왕
	10 미만	문경 서귀포 속초 동두천 과천	10 미만	삼척 오산	

이해된다.

본 논문에서는 1997년 말 금융구조조정이 일어나기 이전과 1998년 12월말 금융구조조정의 1차 단계가 마무리된 시점을 기준으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을 포함하는 일반은행의 점포망을 비교하여 금융구조조정, 금융재구조화가 지역별로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어떤 공간적 의미를 함유하고 있을까 하는 의문에 초점을 맞추었다. 금융구조조정은 지역 내 은행의 퇴출과 흡수 합병, 이로 인한 지역 내 은행수의 변화로 연결된다. 은행의 구조조정의 물결을 가장 심하게 받은 곳은 서울, 인천, 경기로 대표되는 수도권으로 절대변화량의 약 53.4%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은행구조조정은 인구규모와 밀접한 관련성을 보이고 있어 인구수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지역에서 주로 은행수의 감소가 일어났다. 중소도시의 경우 금융구조조정에 따른 은행수의 변화폭이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인구수를 통해 은행점포수의 변

화를 예측한 회귀모델에서는 98% 이상의 높은 설명력을 보이고 있어 은행점포수의 변화가 결국 지역내 인구수를 반영하게 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회귀모델을 이용한 잔차 분석에서는 지역별 편이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부산과 광주는 인구수에 비해 은행점포수의 감소가 적은 반면에 서울과 대전에서는 더욱 많은 은행점포수의 감소가 일어났다. 전체적인 변화의 폭이 수도권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수도권과 연계성이 높은 곳에서 금융 재구조화와 관련된 공간적 영향이 크다는 사실은, 금융재구조화나 범지역적 스케일의 변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은 결국 도시 체계상에서 수위성이 강한 지역에 국한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본 논문은 일반은행 점포망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아직 금융구조조정이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료가

입수되는대로 전체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공간적인 분포의 당위성과 문제점. 그리고 발전방향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의한 자동현금 입출금기의 확산이나 무인점포, 텔레뱅킹, 이동식 점포 등의 등장을 고려하면 기술변화에 의한 금융부분의 재구조화 현상도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註

- 1) 가상자본, 또는 가상화폐는 신용화폐에서 더 발달한 형태로 신용화폐가 투기성향을 가져서 특정한 상품화폐에 대해 미래의 권리를 보유하게 될 때 형성된다. 이것은 미래의 잉여가치에 대한 권리를 소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치가 창출되는 과정 (value in process) 중에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대표적인 가상화폐의 예로는 금융파생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선물(future)이나 옵션(option)제도가 있다. 가상화폐는 상품화폐로 변환하는 것이 불확실한 투기적 형태로 화폐자본화하지 못하면 가치를 상실하는 화폐이다. 가상화폐시장은 생산을 위해 필요한 화폐자본이 계속 순환할 수 있도록 부추기는 역할을 수행한다. 생산자는 생산에 앞서 필요한 자금을 미리 얻을 수 있으며, 금융자본가는 생산으로 창출되는 잉여가치에 대한 권리를 등록하고 이것을 재판대함으로써 이윤을 창출할 수 있게 된다. 금융기관은 예대마진을 통해 투자 위험요소를 줄이고, 소규모 화폐만을 가지고 가상화폐와 같은 대규모 신용화폐 창출을 통해 부가되는 수수료 등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가상화폐는 자본축적의 사이클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경제 호황기에 생산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나 시장 한계에 부딪힐 때 기업이 기술혁신 등을 위한 자금 수요에 의해 수요량이 증가하지만, 경제 불황기에 가상자본액이 실물가치에 환원되지 못할 때 전체 신용체계에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 더욱이 세계적인 신용체계 상에서는 심각한 국제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Corbridge, Martin, Thrift, 1994).
- 2) 첫째, 생산과정에서 상품의 투입요소로 새로운 상

품을 만들어내는 생산자본(productive capital), 둘째, 생산체계 밖에서 생산자에게 자본을 대출하고 이자를 통해 생산자가 창출한 잉여가치를 공유하는 금융자본(financial capital). 그리고 생산활동과는 직접적 연계가 없이 상품 판매와 교환활동을 통해 만들어지는 상업자본(commercial capital)이 그것이다.

文獻

나상욱·임철제, 1999, "1998년중 금융 외환시장 동향과 향후 정책과제," 조사통계월보, 한국은행, 1999. 1월호, 25-54.

이진순, 1999, "금융구조조정 이제 시작일 뿐이다." 답론 21, 새정치국민회의, 15-21.

이찬근, 1999, 뉴금융라운드: 세계 금융체제 개편 논쟁, 모색, 서울.

전국은행 연합회, 1998, 금융기관점포총람.

—————, 1999, 금융기관점포총람(디지털 포맷).

조영우·이동현, 1998, "최근의 국제금융시스템 개편논의와 향후 전망," 조사통계월보, 한국은행, 1998. 11월호, 25-39.

최재현, 1995, "금융지리학으로의 초대: 국제경제 환경의 변화와 지리학의 새 지평," 지역과 환경, 13, 1-10.

최재현, 1998, "세계화 시대의 도시지리 연구를 위한 글로벌 패러다임의 쟁점과 연구동향,"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1), 31-46.

한국은행a, 1999, "1998년중 금융·외환시장 동향과 향후 정책과제," 조사통계월보, 1999. 1월호, 25-54.

한국은행b, 1999, "최근 주요 금융관계법의 제정 및 개정내용," 조사통계월보, 1999. 2월호, 34-65.

허재성·장민, 1998,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현황과 향후 과제," 조사통계월보, 한국은행, 1998. 8월호, 20-47.

Amin, A. and Thrift N., 1992, Neo-Marshallian nodes in global networks,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 Research*, 16, 571-587.
- Amin, A. and Thrift, N., 1995, Globalization, institutional 'thickness' and the local economy, in Healey, P., Cameron, S., Davoudi, S., Graham, S. and Madani-Pour, A.(eds.), *Managing Cities: The New Urban Context*, John Wiley & Sons, Chichester, 91-108.
- Corbridge, S., Martin, R. and Thrift, N., 1994, *Money, Power, and Space*, Blackwells, Oxford.
- Harvey, D., 1982, *The Limits to Capita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 Henderson, J. and Castells, M.(eds.), 1987, *Global Restructuring and Territorial Development*, Sage, Beverly Hills, 234-250.
- Kindleberger, C. P., 1974, *The Formation of Financial Centers: a Study in Comparative Economic History*, Dept. of Economics, Princeton University, Princeton, New Jersey.
- Lee, R., and Schmidt-Marede, U., 1993, Interurban competition? Financial centers and the geography of financial produc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17, 492-515.
- Leyshon, A. and Thrift, N., 1997, *Money/Space: Geographies of Monetary Transformation*, Routledge, London and New York.
- McGee, T. G., 1986, Circuit and networks of capital: the internationalization of the world economy and national urbanization, in Drakakis-Smith, D. ed., *Urbanization in the Developing World*, Croom Helm, London, 23-36.
- Porteous, D. J., 1995, *The Geography of Finance: Spatial Dimensions of Intermediary Behavior*, Avebury, Aldershot.
- Roberts, S. M., 1995, Small place, big money: The Cayman islands and the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Economic Geography*, 71: 2, 237-256.
- Sassen, S., 1991, *The Global City: New York, London, Tokyo*,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NJ.
- Strange, S., 1994, From Bretton Woods to the Casino Economy, in Corbridge, S., Martin, R. and Thrift, N., 1994, *Money, Power, and Space*, Blackwells, Oxford, 49-62.
- Thrift, N., 1990, The perils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22, 1135-40.
- Warf, B., 1989, Telecommunications and the globalization of financial services, *Professional Geographer*, 41, 257-71.